

대한민국 17대 국회의원 사상체질분포 조사연구

김달래 · 구덕모* · 김종덕** · 김종원[†] · 유준상[‡] · 김선형[§]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사당한의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체질개선클리닉

Abstract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of 17th Korean Assemblyman

Kim Dal-Rae, Koo Deuk-Mo*, Kim Jong-Dug**, Kim Jong-Won[†], Yu Jun-Sang[‡], Kim Sun-H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KyungHee Univ.

*Dept.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Daegu Hanny Univ., **Sa-dang Korea Medical Clinic.

[†]Dept.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Dongeui Univ., [‡]Dept.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Sangji Univ.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eo Medical Center

1. Objectives

This Study recognize of the 17th Korean Assemblymen's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nd investigates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of special group.

2. Methods

The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was distributed to Korean Assemblymen's. The next, 2 persons of Sasang Constitutional Specialist interview directly, record of Korean Assemblymen's voice with PSSC and then concluded Sasang Constitution.

3. Results

1. After analysed Sasang Constitution with Questionnaire, We acquired zero person Taeyangin, sixteen persons Soyangin, nine persons Taeumin, zero person Soeumin. But, after direct interview examination, We acquired one person Taeyangin, seven persons Soyangin, twenty-two persons Taeumin, five persons Soeumin.
2. Soyangin rates was 20% practically, but Soyangin rates of amination with Questionnaire was 46%. Because Soyangin in Korean Assemblymen's expressed extrovert for oneself.
3. Taeumin constituted nineteen persons with Questionnaire, accounted for 54%. But Taeumin constituted twenty-two persons in direct interview examination, accounted for 63%.

4. Conclusions

1. In Uri Party, Soyangin rates was 21%, Taeumin rates was 63%, Soeumin rates was 16%, Taeyangin rates was 0%. The group of Taeyangin and Soyangin with activity and progression marked 21%, the group of Taeumin and Soeumin with conservativeness marked 79%.
2. Grand National Party, Soyangin rates was 14%, Taeumin rates was 64.3%, Soeumin rates was 14.3%, Taeyangin rates was 7.1%. The group of Taeyangin and Soyangin with activity and progression marked 21.6%, the group of Taeumin and Soeumin with conservativeness marked 78.6%.
3. In comparison Uri Party with Grand National Party, the rates of active Constitution marked 21.0% and 21.6% be much of a muchness. and in comparison Uri Party with Grand National Party, the rates of conservative Constitution marked 79.0% and 78.6% be much of a muchness.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Korean Assemblyman

I. 緒 論

서양의학은 물론이고 한의학에서도 질병발생에 있어서 설명되지 않는 개체간의 차이는 흔히 체질의 차이로 간주된다. 한의학에서는 실제로 체질 분류법에 근거한 치료를 시행하여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다양한 시각에서 사상체질과 연관 학문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정당별, 지역별, 세대별, 성별 사상체질분포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각 집단은 진보와 보수, 강성과 유연성을 언급하지만 사상체질별 분포에 대한 조사는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결과에서 검사를 얻은 의원은 남성의원 31명 여성의원 4명으로 총 35명을 검사하였다. 이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간편한 설문지^{1,2}법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임상교수 2인이 1조가 되어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직접 대면 면접하여 분류하고, 각 의원들의 음향특성을 Pitch, APQ, Shimmer, Octave 및 Energy 상태를 도표로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음성분석기(PSSC-2004)^{3,4}를 이용해 음성을 입력하고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사상체질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질문과 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체질을 구분하는 조사연구는 향후 특정 집단이나 Cohort 연구에서 체질진단의 진료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남성 31명 여성 4명 총 35명을 체질감별하였다.

1) 남성의원

남성의원은 太陽人 0명, 少陽人 6명, 太陰人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le Assemblymans Group

Type of Constitution	Num ber	Average Age (years)	Average BMI (kg/m ²)	Height (cm)	Weight (kg)
Taeyangin	0
Soyangin	6	54.2±6.8a	25.2±1.2	167.2±8.8	70.6±8.4
Taeumin	20	56.9±17.9	26.7±3.1	170.3±10.7	77.4±16.6
Soeumin	5	54.6±12.4	23.4±2.4	169.3±4.3	67.2±4.1
Sum	31	52.8±14.2	25.8±4.0	169.9±11.1	74.4±19.6
P-value		0.817	0.022*	0.948	0.066

a : Mean±S.D. *P<0.0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Assemblymans Group

Type of Constitution	Number	Average Age (years)	Average BMII (kg/m ²)	Height (cm)	Weight (kg)
Taeyangin	1	45	23.3	159	59
Soyangin	1	55	26.0	158	65
Taeumin	2	51.0±2.0	25.4±1.7	158.0±3.0	63.5±6.5
Soeumin	0
Sum	4	50.5±5.5	25.1±1.9	158.3±2.7	62.8±7.2

20명, 少陰人 5명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52.8세, 평균 몸무게는 74.4kg, 평균 신장은 169.9cm, 평균 BMI는 25.8이었다.

2) 여성의원

여성의원은 太陽人 1명, 少陽人 1명, 太陰人 2명, 少陰人 0명으로 총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50.5세, 평균 몸무게는 62.8 kg, 평균 신장은 158.3 cm, 평균 BMI는 25.1이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기간

- 1차: 2005년 7월 18일~8월 31일까지
- 2차: 2005년 9월 26일~10월 14일
- 3차: 2005년 10월 17일~11월 18일

2) 사상체질검사

① 사상체질의학회에서공인한 QSCCII 중에서 김^{5,6}이 유효하다고 발표한 설문지 기법을 통해 1차적으로 사상체질을 진단하였다. 설문지는 2005년 7월 25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배포하여 모두 9부를 수거하고 체질을 분석하였으며, 국정감사기간중인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차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26부를 더 수거하고 체질을 분석하였다. 이 때 의원과 직접 대면 면담하고 진찰이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였다.

② 설문지를 통해 1차적으로 분류한 사상체질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한의과대학의 사상체질의학교실 담당 교수들이 2인 1조가 되어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제간 및 병증, 맥진, 복진 등의 다양한 진단 방법을 동원하여 체질분류를 실시하였다. 이 때 사상체질 음성분석기에 음성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사상체질조사에 참고하며, 출력하여 각 의원에게 제공하였다.

③ 2인 1조가 되어 각 의원의 사상체질을 분류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약물에

대한 반응, 또는 음식에 대한 반응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한방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에 연락하여 투여하였던 한약 처방명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3) 사상체질구분 기법 및 기구

- (1) 사상체질분류설문지
- (2)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

4) 분석항목

(1) Pitch 관련 항목

- ① center pitch란 음성 파형 중 1/3~2/3 부분의 pitch값이다.
- ② center freq.(Total)란 0~4000Hz의 주파수 중심값이다.
- ③ center freq.(1)이란 0~2000Hz의 주파수 중심값이다.
- ④ center freq.(2)이란 2000~4000Hz의 주파수 중심값이다.
- ⑤ center freq.(3)이란 0~1000Hz의 주파수 중심값이다.
- ⑥ center freq.(4)이란 1000~2000Hz의 주파수 중심값이다.

(2) APQ 관련 항목

- ① APQ(center)란 음성파형중 가장 안정구간의 중심값이다. 분석하려는 음성파형의 앞뒤 0.375sec(3000×0.0125)를 자른 후 중심값을 구한 것이다.
- ② APQ(1/5) 이란 음성 파형 중 0~1/5 부분의 APQ값이다.
- ③ APQ(2/5) 이란 음성 파형 중 1/5~2/5 부분의 APQ값이다.
- ④ APQ(3/5) 이란 음성 파형 중 2/5~3/5 부분의 APQ값이다.
- ⑤ APQ(4/5) 이란 음성 파형 중 3/5~4/5 부분의 APQ값이다.
- ⑥ APQ(5/5) 이란 음성 파형 중 4/5~5/5 부분의 APQ값이다.

- ⑦ APQ(1/2)란 음성파형을 2등분 했을 때 0~1/2구간의 APQ 값이다.
- ⑧ APQ(2/2)란 음성파형을 2등분 했을 때 1/2~2/2구간의 APQ값이다.
- ⑨ APQ(1/3)란 음성파형을 3등분 했을 때 0~1/3구간의 APQ값이다.
- ⑩ APQ(2/3)란 음성파형을 3등분 했을 때 1/3~2/3구간의 APQ값이다.
- ⑪ APQ(3/3)란 음성파형을 3등분 했을 때 2/3~3/3구간의 APQ값이다.

(3) Octave 관련 항목

- ① Octave1이란 0~64Hz까지의 Octave 값이다.
- ② Octave2이란 64~128Hz까지의 Octave 값이다.
- ③ Octave3이란 128~256Hz까지의 Octave 값이다.
- ④ Octave4이란 256~512Hz까지의 Octave 값이다.
- ⑤ Octave5이란 512~1024Hz까지의 Octave 값이다.
- ⑥ Octave6이란 1024~2048Hz까지의 Octave 값이다.

(4) Shimmer 관련항목

- ① Total Shimmer란 음성파형의 전체 Shimmer 값이다.
- ② Octave 1 Shimmer란 0~64Hz 구간의 음성파형의 Shimmer 값이다.
- ③ Octave 2 Shimmer란 64~128Hz 구간의 음성파형의 Shimmer 값이다.
- ④ Octave 3 Shimmer란 128~256Hz 구간의 음성파형의 Shimmer 값이다.
- ⑤ Octave 4 Shimmer란 256~512Hz 구간의 음성파형의 Shimmer 값이다.
- ⑥ Octave 5 Shimmer란 512~1024Hz 구간의 음성파형의 Shimmer 값이다.
- ⑦ Octave 6 Shimmer란 1024~2048Hz 구간의 음성파형의 Shimmer 값이다.
- ⑧ 0k~2k Shimmer란 0~2000Hz의 Shimmer

값이다.

- ⑨ 2k~4k Shimmer란 2000~4000Hz의 Shimmer 값이다.

(5) Energy 관련항목

- ① Energy(mean)란 음성파형 분석구간의 Energy값이다.
- ② Energy(1/3)란 음성파형을 3등분 했을 때 0~1/3구간의 Energy 값이다.
- ③ Energy(2/3)란 음성파형을 3등분 했을 때 1/3~2/3구간의 Energy 값이다.
- ④ Energy(3/3)란 음성파형을 3등분 했을 때 2/3~3/3구간의 Energy 값이다.
- ⑤ Energy(1/2)란 음성파형을 2등분 했을 때 0~1/2구간의 Energy 값이다.
- ⑥ Energy(2/2)란 음성파형을 2등분 했을 때 1/2~2/2구간의 Energy 값이다.
- ⑦ 0k-2k Total sum이란 0~2000Hz의 Energy 합이다.
- ⑧ 0k-2k pev.(편차합)이란 0~2000Hz에서의 파형의 변화분 값이다.
- ⑨ 2k-4k Total sum이란 2000~4000Hz의 Energy 합이다.
- ⑩ 2k-4k pev.이란 2000~4000Hz에서의 파형의 변화분 값이다.
- ⑪ Zero over pev.(편차합)이란 0보다 큰 pick지점의 차의 절대값의 합이다.
- ⑫ Zero over Energy sum(에너지합)이란 0보다 큰 Energy의 합이다.

3. 통계처리

1)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석

四象體質에서 각 體質間에 음성 특성을 알기 위해 모집단을 통하여 추출한 후 체질 분류에 따라 표본들의 수시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ANOVA Test를⁷⁾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단, 여성의원들의 경우 참가자가 4명에 불과해 통계처리를 생략했다.

Ⅲ. 研究結果

1. 국회의원들의 체질분포

설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0명, 少陽人 16명, 太陰人 19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대면 진찰을 통해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1명, 少陽人 7명, 太陰人 22명, 少陰人 5명으로 나타났다.

2. 설문지상 남성 의원들의 체질분포

설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남성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0명, 少陽人 14명, 太陰人 17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다.

열린 우리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7명, 太陰人 9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7명, 太陰人 6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1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무소속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1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민주연합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참가자가 없었다.

3. 설문지상 여성 의원들의 체질분포

설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여성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0명, 少陽人 2명, 太陰人 2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다.

열린 우리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1명, 太陰人 2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

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1명, 太陰人 0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과 무소속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0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민주연합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참가자가 없었다.

4. 대면 진찰한 남성 의원들의 체질분포

대면 진찰을 통해 2차적으로 남성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0명, 少陽人 6명, 太陰人 20명, 少陰人 5명으로 나타났다.

열린 우리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3명, 太陰人 10명, 少陰人 3명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2명, 太陰人 9명, 少陰人 2명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1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무소속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1명, 太陰人 0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민주연합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참가자가 없었다.

5. 대면 진찰한 여성 의원들의 체질분포

대면 진찰을 통해 2차적으로 여성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1명, 少陽人 1명, 太陰人 2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다.

열린 우리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1명, 太陰人 2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에서는 太陽人 1명, 少陽人 0명, 太陰人 0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과 무소속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0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민주연합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참가자가 없었다.

Table 3.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in Korean Assemblymans

Constitution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Questionnaire	0	16	19	0
Direct Diagnosis	1	7	22	5

6. 사상체질음성분석기상 남성 의원들의 체질분포

사상체질음성분석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남성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0명, 少陽人 9명, 太陰人 20명, 少陰人 2명으로 나타났다. 열린 우리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6명, 太陰人 9, 少陰人 1명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5명, 太陰人 7명, 少陰人 1명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1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무소속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1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민주연합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참가자가 없었다.

7. 사상체질음성분석기상 여성 의원들의 체질분포

사상체질음성분석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여성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0명, 少陽人 1명, 太陰人 2명, 少陰人 1명으로 나타났다. 열린 우리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2명, 少陰人 1명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1명, 太陰人 0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과 무소속에서는 太陽人 0명, 少陽人 0명, 太陰人 0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민주연합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참가자가 없었다.

8. 남성 의원들의 음향특성

1) 남성 의원들의 Pitch, center freq.(4)의 평균값은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집단이 각각 1157.7 ± 64.9 , 1156.8 ± 57.5 , 1178.3 ± 57.7 로 나타나서 少陰人 집단의 center freq.(4) 평균값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36$).

2) 남성 의원들의 APQ

APQ(3/3)에의 평균값은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집단이 각각 0.35 ± 0.08 , 0.31 ± 0.07 , 0.29 ± 0.22 로 나타나서 少陽人 집단의 APQ(3/3) 평균값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46$).

3) 남성 의원들의 Shimmer Octave Energy값은 유의성 없게 나타났다.

7. 여성 의원들의 음향특성

여성 의원들의 경우 참가자가 4명에 불과해 음향특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IV. 考 察

四象體質醫學에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향후 질병의 양상, 섭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體質의 鑑別이다. 이것은 기존 한의학에서 辨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질병의 진단은 물론 예방과 치료에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四象體質진단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계에서는 그 진단의 客觀化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가 상당부분 발표되고 있으며, 四象體質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8,9}, 외모의 특징을 수치화하는 방법¹⁰⁻¹², 생화학적 물질분석법¹³,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¹⁴, O-ring test¹⁵, 음성을 분석하는 방법¹⁶⁻²², 등 여러 가지가 이용되고 있다. 유전자를 이용하여 體質分析²³⁻²⁴뿐만 아니라 體質과 疾病間의 상관성²⁵⁻²⁶에 관해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2005년 7월 18일 의원회관 505호 *** 의원실에서 설문지를 인쇄하여 299명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회수율이 매우 낮았다. 처음부터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였으나 2005년 8월 말까지 회수된 것이 불과 9부에 불과하였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서류가 출납되는 것을 감안하고, 국정감사를 대비하느라 바쁜 보좌관과 비서관, 직원들의 직무 때문에 회수율이 낮다고 판단되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근하는 국정감사기간 중인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차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26부를 더 수거하고 체질을 분석하였다. 이 때 의원과 직접

대면 면담하고 진찰이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였다. 그 결과 총 35명의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설문지는 QSCCII로 알려진 '사상체질설문지'를 김^{1,2}이 유효하다고 발표한 설문지 기법을 통해 1차적으로 사상체질을 진단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1차적으로 분류한 사상체질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한의과대학의 사상체질의학교실 담당교수들이 2인 1조가 되어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및 병증, 맥진, 복진 등의 다양한 진단방법을 동원하여 체질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상체질 음성분석기에 음성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사상체질조사에 참고하며, 출력하여 각 의원에게 제공하였다.

2인 1조가 되어 각 의원의 사상체질을 분류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약물에 대한 반응, 또는 음식에 대한 반응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한방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에 연락하여 투여하였던 한약 처방명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남성의원들의 체격조건을 분석했을 때 체질량지수(BMI)에서 소음인과 태음인 사이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소양인과 태음인 사이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특히 태음인 남성의원들은 평균 체질량지수가 26.6을 넘어서 과체중이 심한 상태로 나왔다. 따라서 체중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의원들의 체질분포는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 사상인변증론에서 제시했던 태음인 50%, 소양인 30%, 소음인 20%, 태양인 0.1% 미만의 비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김^{3,4} 등이 太陽人 3.24%, 少陽人 24.17%, 太陰人 37.1%, 少陰人 35.59%라고 보고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설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의원들의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0명, 少陽人 16명, 太陰人 19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대면 진찰을 통해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1명, 少陽人 7명, 太陰人 22명, 少陰人 5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태양인은 설문지를 통해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소양인은 실제 20%에 지나지 않았으나 설문지를 통해서 전체의 46%로 표시했는데 이는 설문지를 통해 성질재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향적인 소양인으로 스스로를 표기하는 의원들이 실제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인은 스스로의 능력과 업적을 말할 통해 드러내는 직업인으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특성이 있으며, 설문지 상에서도 이런 성향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실제 대면 진찰을 통해 14%나 되는 소음인 체질의 의원들조차 소양인이나 태음인으로 스스로를 표기하여 설문지에서는 소음인이 1명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실제 대면 진찰에서 소음인으로 확정된 5명의 소음인 의원 중에서 스스로를 소양인으로 표기한 사람은 2명이었고, 태음인으로 표기한 사람이 3명이었다.

태음인은 설문지상에서 19명을 차지해 전체의 54%를 나타냈고, 직접 대면진찰을 통해서 22명으로 밝혀져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러한 비율은 다른 체질에 비해 태음인 체질 의원들의 성품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실제 직접 대면 진찰을 하면서 확정된 체질을 설명할 때 태음인 체질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과시하는데 비해 소음인 체질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성품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직이 국가의 행정부문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의 역할을 미디어를 통해 드러내야 하며, 막강한 체력, 원만한 인간관계 및 독특한 아이디어를 입법 활동이나 의원활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태음인 체질에게 유리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설문지를 통해 분석된 사상체질이 실제 대면 진찰에서도 동일하게 밝혀진 의원들은 19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는데, 이는 설문지를

통한 사상체질진단의 정확도가 61.8%라고 보고한 김^{3,4} 등의 연구와 일치했고,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해 분석된 사상체질이 실제 대면 진찰에서도 동일하게 밝혀진 의원들은 25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으며, 이는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한 사상체질진단의 정확도가 설문지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남녀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설문지와 직접 진단의 일치도 검정은 설문지의 소음인과 태음인에는 아예 없어서 일치도 검정을 할 수 없었고 단지 빈도만 나타낼 수 있었다.

각 정당별 사상체질분포는 살펴보았을 때 열린 우리당에서는 소양인이 4명으로 21.0%를 차지했고, 태음인이 12명으로 63.0%를 차지했으며, 소음인은 3명으로 16.0%를 차지했으며, 태양인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태양인과 소양인의 비중이 전체의 21.0%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보수적인 태음인과 소음인의 비중이 79.0%로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소양인이 2명으로 14.3%를 차지했고, 태음인이 9명으로 64.3%를 차지했으며, 소음인은 2명으로 14.3%를 차지했으며, 태양인은 1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태양인과 소양인의 비중이 전체의 21.6%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보수적인 태음인과 소음인의 비중이 78.6%로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교하면 이러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어느 당이 더 진보적이라거나 더 보수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아마도 이렇게 각 체질별 분포도가 정당의 특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정당의 특색보다는 지역별 정당 선호도와 관련된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四象體質과 音聲分析에 관한 연구에 주로 이용된 분석항목으로는 CSL(computerized speech lab)을 이용해서 기본주파수(pitch), 기본주파수의 범

위(pitch range),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 포먼트 폭(formant bandwidth), 단위시간당 발화속도, 성대의 개방시간 및 폐쇄시간, 기타 음성변수들(parameters) 등이 있다.

金¹⁷은 “太陰人の 음성은 강하면서 탁하고, 少陰人の 음성은 낮으면서 약하며, 少陽人の 음성은 맑으면서 빠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해서 음향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된^{3,4} 44개 항목에 대해 남성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pitch는 음성의 높낮이로 성대 진동주기에 대한 청자의 지각적인 개념이다. pitch는 강세 억양 감정 등의 요인에 따라 변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pitch를 조절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성대 근육의 장력이다. 성대의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기의 짧은 분사는 일정한 비율로 진동을 일으킨다. 이 진동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며 성대의 긴장을 통제하는 근육의 힘과 성대 밑의 기압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람은 이것을 음의 높이 즉 pitch로 인식하는데, 어린이나 여자는 성도의 길이가 남성에 비해 짧아서 주파수가 높게 나타난다. 남자는 보통 50~200Hz, 여자는 120~500Hz이다. pitch는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음성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²⁹.

남성의원에서는 center freq.(4), 즉 1,000~2,000 Hz에서의 중심값이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집단이 각각 1157.7±64.9, 1156.8±57.5, 1178.3±57.7로 나타나서 少陰人 집단의 center freq.(4)의 평균값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고(P=0.036), 사후분석에서도 太陰人과 少陰人를 구별하는데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³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소음인의 Pitch가 가장 높은 것은 ‘宮商角徵羽의 五音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 羽音은 라(Ra)에 해당하기 때문에 五音 가운데 가장 높은 음’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청각적으로 약하게 들리는 소음인의 음성은 음성분석기를 통해 분석했을 때는 실제로 주파수가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APQ는 amplitude perturbation quotient의 줄임말로써 장-단기 음성강도의 변이를 보여주는 관련 정보로서 진폭의 섭동을 %로 나타내준다. APQ는 대체로 기식성 음성(breathy voice)이나 애성(hoarse voice)이 경우 그 수치가 증가하며 수치가 증가할수록 성대의 주기적 진동이 어렵다는 뜻이며, 의학적으로는 병적인 음성을 분석하는 곳에서 유의성 있는 분석항목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성장애를 가진 환자의 50% 이상에서 성대는 초과된 무게(성대결절, 부종 등)로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가적인 덩어리는 성대를 따라서 이질적으로 분포하면서 성대의 불규칙한 진동을 야기하게 된다³⁰.

APQ(3/3)란 음성파형을 3등분 했을 때 2/3-3/3 구간의 APQ값인데, 남성의원에 있어서 APQ(3/3)에서는 평균값이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집단이 각각 0.35 ± 0.08 , 0.31 ± 0.07 , 0.29 ± 0.22 로 나타나서 少陽人 집단의 APQ(3/3)의 평균값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46$).

이러한 결과는 소양인이 평소에는 목소리가 차분하다가 약간의 긴장으로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히 남성의원들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려는 경우에 목소리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음성파형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톤이라는 점을 안다면 지나치게 진폭의 변동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소양인 체질은 스스로의 감정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결과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외에 남성의원들의 Shimmer, Octave, Energy를 분석한 항목에서는 유의성 있는 부분이 없었고, 여성의원들의 경우 참가자가 소양인 1명, 태음인 2명, 소음인이 1명에 지나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17개 국회의원들의 체질분포는 태음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태음인은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고 가르치는데 유능하다”는 『東醫壽世保元』「擴充論」의 “其性卓卓然 猶教誘”

에서 처럼²⁷, 좀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한의계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정책결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시행하면서 느낀 점도 많은데, 여러 교수들이 열정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처음 목표했던 수의 의원들을 만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에 이와 같은 연구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각 정당별 참가자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짧은 연구기간과 의원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예약된 시간을 지켜준 의원들의 비중이 낮았고, 사상체질에 대한 정보가 빈약했던 것이 많이 참가하지 않았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전문집단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홍보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한의학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보다 유리한 면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V. 結 論

본 연구는 대한민국 17대 국회의원들의 사상체질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적으로 사상체질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상체질 전문의가 직접 對面 진찰하여 사상체질을 확정하는 것으로 특정집단의 사상체질분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1. 설문지를 통해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0명, 少陽人 16명, 太陰人 19명, 少陰人 0명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대면 진찰을 통해 사상체질을 분석한 결과 太陽人 1명, 少陽人 7명, 太陰人 22명, 少陰人 5명으로 나타났다.

2. 소양인은 20%에 지나지 않았으나 설문지를 통해서 전체의 46%로 표시했으며, 이는 외향

적인 소양인으로 스스로를 표기하는 의원들이 실제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3. 태음인은 설문지상 19명을 차지해 전체의 54%를 나타냈고, 직접 대면진찰을 통해서는 22명으로 밝혀져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4. 열린 우리당에서는 소양인이 21.0%, 태음인이 63.0%, 소음인은 16.0%, 태양인은 없었으며,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태양인과 소양인의 비중이 21.0%, 보수적인 태음인과 소음인의 비중이 79.0%로 매우 높았다.

5. 한나라당에서는 소양인이 14.3%, 태음인이 64.3%, 소음인은 14.3%, 태양인은 7.1%였으며,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태양인과 소양인의 비중이 21.6%, 보수적인 태음인과 소음인의 비중이 78.6%로 매우 높았다.

6.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교했을 때, 진보적인 체질과 보수적인 체질의 비중이 21.0 : 79.0와 21.6 : 78.6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연구에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을 참여시켜 체질분포를 분석할 수 있다면 특정집단의 체질적합성을 도출하는데 유효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參考文獻

1. 김태연, 유정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의 Upgrade 연구 (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27-38.
2. 이상규, 광창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의 Upgrade 연구 (I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39-49.
3. 김동준, 정운기, 최재완, 김달래, 전종원.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한 성인남성의 체질별 음향특성.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1):67-83.
4. 김선형, 한동윤, 윤지영, 김달래, 전종원.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한 한국인 성인 여성의 체질별 음향특성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1):84-102.
5. 김영우, 이의주, 최선미, 정성일, 이영욱, 조훈석, 김종원. 사상체질진단기준(외모 심성 병증)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10.
6. 김영우, 이의주, 최선미, 김종화, 정성일, 이현민, 김종원.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QSCCII)의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1-21.
7. 박종구, 장세진 공저 : SPSS/PC+를 이용한 보건통계학. 도서출판 우현, 서울, 1997:111-137.
8.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1):187-246.
9.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1):247-294.
10. 허만희, 송정모, 김달래, 고병희.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2;4(1):107-148.
11. 이수경,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대한 분석. 사상의학회지. 1996;8(1):349-376.
12. 고병희, 송일병, 조용진, 최창석, 김종원, 홍석철, 이의주, 이상룡, 김종원, 서정수.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의학회지. 1996;8(1):101-186.
13. 조황성, 지상은,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권건혁, 남봉현, 조동욱.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 (생화학적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7;9(1):147-162.
14. 박성식, 최재영, 정민석, 김이석, 이제만, 이경애, 조규선, 이지영, 박은경. 사상체질유형과 지문, 손바닥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10(1):81-100.
15. 김정렬, 김달래. 계측기를 이용한 O-ring test 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7(1):69-102.
16. 양승현, 김달래, 성문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2):191-201.

17. 김달래, 박성식, 권기록. 성문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연구(I). 사상의학회지. 1998;10(1):65-80.
18. 신미란, 김달래. CSL을 통한 음향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37-158.
19. 양상묵, 김선형, 유준상, 김형석, 이영훈, 김달래. Pitch Range와 Bandwidth를 이용한 음성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31-39.
20. 김선형, 신미란, 김달래, 권기록. Laryngograph와 EGG를 이용한 음향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44-156.
21. 유준상. 청각적 음성분석 통한 사상체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1-29.
22. 박성진, 김달래. Harmonics와 Formant Bandwidth를 이용한 음성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6(1):191-201.
23. 조동욱, 이창수, 고병희, 조황성. 유전자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2):151-164.
24. 한성규, 지상은, 최선미. HLA typing을 이용한 체질유전자 분석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2001;13(1):97-103.
25. 옥윤영, 김종관, 한병삼, 김경요, 고기덕. 글루타티온 S-전환효소 다형성과 뇌혈관질환 및 사살체질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2002;14(1):123-131.
26. 주종천, 배영춘, 권덕윤, 김경요, 김일환. 뇌경색 환자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 다형성과 사상체질. 사상체질학회지. 2003;14(1):132-139.
2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임.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133-134.
28. 김달래, 사상입해지남 합본 동의수세보원초고. 정담, 서울, 1999:134.
29. 구희산, 고도홍, 양병근, 김기호, 안상철. 음성학과 음운론. 한신문화사, 서울, 1998:15-16.
31. 홍수기. 다양한 음성을 이용한 자동화자식별 시스템 성능 확인에 관한 연구. 대한음성학회 말소리. 2002;43:45-55.